1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 내에 위치한 풍영정천 주차장이 최근 내린 장맛비 등으로 무너져 내린 채 방치되고 있다. 유실된 주차장에 차량들이 위험스럽게 세워져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하남공단 풍영정천 주차장 20여m 붕괴…'위험한 방치'

## 접근 차단 시설 등 없어 2차 피해 우려

하남공단내 한 주차장이 최근 내린 장맛비로 무너져내렸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하천과 접한 이 주차장은 유실된 부분 주변에 버스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 주차돼 언제라도 2차 붕괴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풍영정천 주차장. 하남공단 8~9번로 사이 천변에 위치한 이 주차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시작한 '풍영정천 수해 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준설 작업 등으로 부분 침식된데다 최근 장맛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무너져 내린 부분은 폭 2m, 길이 20m에 달하며 곳곳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균열현상도 발견됐다.

하지만,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광주시는 '위험' 등 경고문구가 적힌 표지판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버스와 승용차 등 수십여 대의 차량이 위험스럽게 주차돼 있었다.

이 공단에는 931개 업체, 2만6천여명의 노동자가 몰려있는데다 왕래하는 시민도 많아 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주차장에는 하루 평균 60~70대(시 추산)의 차량이 주차되고 있다.

하남공단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하천을 정비한다며 바닥을 파내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천 변 곳곳이 조금씩 기울더니, 최근 장맛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다"며 "관리책임이 있는 시에 수차례 관리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 정비사업이 끝나는 내년 4월 이전에 (풍영정천 주차장은) 철거될 예정이라, 부분 유실된 줄은 알고 있었으나 무너져 내린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4년 4월 조성된 풍영정천 주차장은 1만900m²(3천300여평) 규모로 소형차(2.5t 이하) 586대가 주차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교장선생님은 출장 중"

## 전남 상당수 年 100일 이상 학교 비워

## 출장비는 꼬박꼬박 챙겨 빈축 사기도

전남지역 일부 학교장들이 한 해 100일 이상을 출장으로 학교를 비우고, 출장비마저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전남도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8년도 나주, 영암, 장흥, 완도, 해남, 신안 등 5개 지역의 초·중·고 221개교 학교장 출장일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수준인 70일 이상 출장을 간 교장은 85명에 달했다.

특히 나주 A초교 S교장은 출장일수가 142일이나 됐으며, 완도 B초교 J교장은 127일, 같은 지역 C초교 S교장은 115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연간 수업 일수가 220일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중 절반 이상 학교를 비운 것이다.

장흥 D, E초교 교장도 각 108일과 103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신안의 F중학교 교장은 출장일수가 101일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장 출장일수가 40~50일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도 나주 A초교 교장은 4월 말 현재 벌써 51일간이나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여비도 전 교직원 지출 금액의 14.6%를 챙겼다.

또 이들 교장 대부분은 과도한 출장 논란에도 꼬박꼬박 여비를 수령했으며, 일부 학교 교장은 전 교직원 출장비의 30% 이상을 가져가기도 했다.

학교장의 잦은 출장과 여비 지출로 일반교사들이 연수나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장들의 출장 남용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교사와는 달리 교장은 교육청의 승인 절차가 없는 것이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또 섬이나 벽지 등의 일부 학교장은 주말 등을 육지에서 보내고 나서 기상악화 등으로 귀교(歸校)를 못하면 출장처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남도내 지역교육청에서는 일부 교장의 과도한 출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징계를 하거나 부적절하게 지급된 여비를 회수하기도 했다.

도 교육위 유제원 위원은 "꼭 가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출장 사례가 많다"면서 "잦은 출장은 학사운영 차질, 교육 분위기 위축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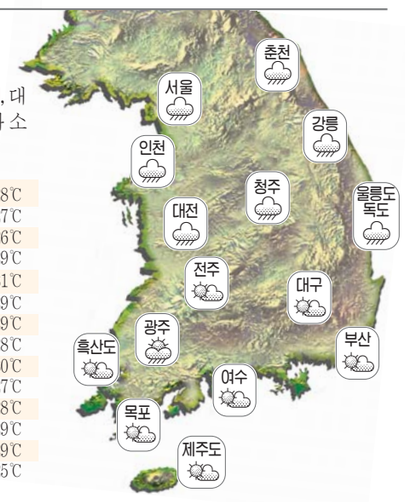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22분 해짐 19시 51분 달뜸 15시 32분 달짐 01시 06분

### 한때 소나기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대기가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 | | |
|---|---|---|
| 광 주 | 구름많고 한때비 | 19/28℃ |
| 목 포 | 맑은뒤 흐림 | 18/27℃ |
| 여 수 | 맑은뒤 흐림 | 19/26℃ |
| 완 도 | 맑은뒤 흐림 | 18/29℃ |
| 구 례 | 구름많고 한때비 | 18/31℃ |
| 해 남 | 맑은뒤 흐림 | 18/29℃ |
| 장 흥 | 맑은뒤 흐림 | 18/29℃ |
| 고 흥 | 맑은뒤 흐림 | 17/28℃ |
| 순 천 | 맑은뒤 흐림 | 19/30℃ |
| 영 광 | 맑은뒤 흐림 | 18/27℃ |
| 진 도 | 맑은뒤 흐림 | 19/28℃ |
| 전 주 | 맑은뒤 흐림 | 18/29℃ |
| 남 원 | 구름많고 한때비 | 17/29℃ |
| 흑산도 | 맑은뒤 흐림 | 17/25℃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1.0~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1.0~1.5m |
| 먼바다 | 남서~서 | 1.0~1.5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높음 | 경고 | 높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1.0~1.5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먼바다 | 남서~서 | 1.0~1.5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9:41 22:59 | 03:17 15:26 |
| 여수 | 04:40 18:11 | 11:01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3(금) | 4(토) | 5(일) | 6(월) | 7(화) | 8(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0/29 | 19/31 | 20/32 | 21/31 | 22/27 | 21/30 |

굳건한 안보속에 통일한국 보장된다
간첩·안보사범 및 국제범죄 신고는 111

# 0.67점은 노트북 성능 차이?…공정성 '잡음'

## '광주천 경관 사업' 탈락 업체 가처분 신청

## 광주시, 자체감사 심사 공정성 여부 점검

단 0.67점 차로 66억8천만 원에 이르는 '광주천 제3차 경관사업'에서 2위로 탈락한 업체가 평가시연 과정에서 당초 지침과는 다른 노트북이 사용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지난 10일 교수 및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주관적 평가(60점 배점)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협상 적격 대상자로서의 지위 확인 및 절차의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광주지법에 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심사 전 광주시가 소유한 노트북을 통해 동영상 CD를 시연하도록 지침이 내려졌으나, 1위를 한 업체의 CD가 작동이 안 되자, 해당 업체의 최신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이들 노트북의 동영상 처리 속도나 화질 등 성능에 큰 차이가 났으며 특히 이는 디자인을 시연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채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과정상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천 제3차 경관사업'은 광주천 횡단교량 7개소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고 원지교~남광교 2㎞ 구간의 노후 가로등 20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는 질 높은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20점)와 가격 평가(20점), 주관적 평가(60점)를 벌여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당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1위를 한 업체의 CD가 높은 버전으로 작성돼 시 소유 노트북에서 작동이 안 됐으며,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위해 업체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 당시 참여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고 심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단 2일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벌여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혼탁 수돗물 고통…상수원 바꿔달라"

## 광주 두암동 아파트 주민 민원 … 市 교체 검토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식수 전쟁' 〈본보 지난달 24일자 6면〉을 치르고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상수원을 바꿔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1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 H아파트·Y아파트 560세대 입주민들이 보름 이상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되자 화순 동복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용연 정수장의 수돗물로 교체해 달라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H아파트·Y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재 제4수원지를 상수원으로 하는 각화 정수장의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보름 간 혼탁한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상수원 교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지름 80㎜~350㎜의 수도관 내부세척을 위한 긴급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일대의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환경부 기준 먹는 물 수질에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면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입주민들의 요구대로 상수원 교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